

우승컵 들었지만... 골 결정력·빌드업 완성도 속제 여전



18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인컵 결승전에서 일본에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시아인컵 축구 일본 1-0 꺾어
EAFF 통산 5번째 우승
벤투 감독, 첫 국제대회 우승
3경기중 필드골 황인범 유일
빠른 침투 하키엔 공격진 부실
벤투 감독 고집스런 전술도 도마위
3경기 무실점... 탄탄한 수비는 강점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하지만 한 해 동안 답답한 경기력을 지적받았던

대표팀에게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팀은 지난 18일 EAFF E-1 챔피언십 최종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승리했다. 대표팀은 '무실점 3연승'을 기록하며 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EAFF 통산 5번째 우승이자 벤투 감독 한국 대표팀 부임 이후 첫 국제대회 우승이다. 하지만 대표팀은 '필드골의 부재'라는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최종전에서 황인범이 넣은 결승골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나온 필드골이다. 대표팀은 앞서 홍콩과 1차전에서 황인범이 프리킥 골, 나상호가 코너킥 상황 중 헤더골을 넣었다. 이어진 중국전에서 터진 김민재의 헤더 결승골도 코너킥 상황에서 터졌다. 이에 대해 파울루 벤투의 전략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높은 점유율을 내세워 빠른

침투로 공격을 전개하는 '빌드업 축구'를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홍콩, 중국전에서 벤투호는 예상대로 빌드업 축구를 시도했다. 하지만 상대가 두터운 수비 진영으로 맞서자, 빈번한 공격 기회도 잡지 못한 채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재빠른 침투력이 중요한 빌드업 축구를 뒷받침할 공격진이 부실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회에서 벤투 감독은 K리그, 일본 J리그 출신 선수들을 최전선에 세웠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캘린더에 포함되지 않아 유럽과 선수들이 출전할 의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황희찬(잘츠부르크) 등 '유럽파 에이스'들이 합류하지 못한 데다 김승수(전북)와 김문환(부산) 등이 부상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공격진의 결정력이 약해졌다. 이로 인해 주전 공격수로 채워진 플랜A가 어려워

졌음에도 기존의 빌드업 축구를 고집해 답답한 경기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일본전에 와서야 벤투호는 방향을 틀었다. 후반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꿰뚫는 공간 패스를 연결하며 수비진을 흔들었다. 상대가 불을 잡으면 전방을 강력히 압박하며 패스 루트를 차단했다. 중원 압박과 패스가 좋은 일본을 공략하기 위한 역동적인 전술이었다. 전통적인 빌드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 전술은 기다려왔던 필드골로 돌아왔다. 주세종의 장거리 대각선 패스, 황인범의 볼배급이 효과를 보이며 여러 차례 득점 기회가 마련됐다. 황인범은 압박을 통해 불을 끊어내고, 빠른 역습을 통해 골문을 열었다. 한일전인 만큼 선수들이 승리욕을 불태운 측면도 있으나, 벤투 감독의 전술 카드가 다양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벤투가 전술 변화를 감행할 수 있었던 데는 튼튼한 수비진이 한몫했다. 부임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유지한 김영권-김민재 중앙 수비라인이 빌드업의 기초를 마련해줬고, 이로써 중원과 공격진에서 다양한 전술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튼튼한 수비진은 또 3경기 무실점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밖에 황인범, 김민재(베이징 궈안), 나상호(FC도쿄) 등 공수에서 맹활약한 '1996년생 23살 동갑내기'도 성과를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서 득점은 모두 이들 동갑내기의 몫이었다. EAFF E-1 챔피언십을 끝으로 올해 18차례 A매치(12승 4무 2패) 일정을 모두 마친 벤투호는 내년 3월 26일 튀르키예니스탄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5차전 홈경기를 앞두고 다시 모이게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올 가장 빛난 축구 선수는 손흥민

대한축구협회 시상식 '올해의 남자 선수' 4번째 선정 '역대 최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27·토트넘)이 올해 한국 축구를 가장 빛낸 스타 플레이어로 뽑혔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9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KFA 시상식'에서 손흥민을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했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혀 기성용(뉴캐슬·2011년, 2012년, 2016년)과 최다 수상 타이틀 기록했던 손흥민은 2년 만에 다시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면서 역대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한국 국적으로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출입기자단(50명), 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 및 전임 지도자(이상 14명)의 투표로 결정됐다. 1명당 1~3순위 투표가 진행됐다. 손흥민은 209표를 얻어 이강인(발렌시아·69점)과 김보경(울산·48점)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올해의 남자 선수로 우뚝 섰다. 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와 전임지도자의 투표로 선정된 '올해의 여자 선수'에는 지소연(28·첼시 FC 위민)이 선정됐다. 지소연은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통산 5번째 '올해의 여자 선수'로 뽑혔다. 지소연은 남녀 선수를 합쳐 역대 최다 수상자

가 됐다. 올해의 지도자상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U-20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정정용 감독과 올 시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추계연맹전에서 화천정산고의 우승을 지도한 김유미 감독에게 돌아갔다. U-20 대표팀의 '막내형' 이강인과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U-19 여자 챔피언십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강지우(고려대)는 올해의 남녀 영플레이어상의 수상자가 됐다. /연합뉴스 <2019 대한축구협회 시상식 부문별 수상자 명단 > ▲올해의 선수 = 손흥민(토트넘), 지소연(첼시 FC 위민) ▲올해의 영플레이어 = 이강인(발렌시아), 강지우(고려대) ▲올해의 지도자 = 정정용(서울이랜드), 김유미(화천정산고) ▲올해의 심판 = 김우성(남자주심), 윤광렬(남자부심), 김유정(여자부심), 김혜림(여자부심) ▲올해의 클럽 = 화성 FC, SMC엔지니어링, 벽산플레이어스, 사하구여학생초등부축구교실, 꿈두리, 동김해축구클럽 ▲나눔플레이어상 = 강은비, 코드문스트, 우원재 ▲히든히어로 = 정한균 순천중앙초 감독 ▲공로패 = 이정수, 김동진(이상 전 국가대표), 허흥렬 대구시 축구협회 부회장, 심재호 경기도풋살연맹 회장 /연합뉴스



손흥민

권창훈 빛바랜 활약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 뮌헨전 동점골 관여... 팀은 1-3 석패

독일 프로축구 프라이부르크가 권창훈을 기점으로 나온 동점 골에도 '거함' 바이에른 뮌헨에 석패했다. 프라이부르크는 19일(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드라이잠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9-2020 분데스리가 16라운드 뮌헨과의 홈 경기에서 1-3으로 졌다. 권창훈은 팀이 0-1로 뒤지던 후반 9분 마이크 프란츠와 교체 투입돼 동점골 사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뮌헨은 '골잡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시즌 19번째 골로 먼저 앞서나갔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을 빠르게 돌파하고서

울린 낮은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던 레반도프스키가 오른발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프라이부르크는 후반 13분 야니 하베라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빈첸초 그리포가 골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동점 골을 뽑았다. 앞서 공을 탈취해 역습 상황을 만들고 하베라에게 영양가 높은 패스를 내준 권창훈의 활약이 돋보였다. 프라이부르크가 강팀을 상대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내는가 싶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프라이부르크는 후반 47분에는 조슈아 저크지, 후반 50분에는 세르주 나브리에게 연속골을 얻어맞고 결국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두산 린드블럼 '연봉 보다 옵션'

매 시즌 190이닝 던지면 212억

KBO리그를 평정하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투수 조쉬 린드블럼은 시즌 연봉보다 옵션에 따른 보너스가 더 많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은 19일(한국시간) 밀워키 브루어스와

3년 계약을 한 린드블럼이 매 시즌 190이닝 이상 던지면 최대 1812만5천 달러(한화 약 212억원)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린드블럼은 계약 보너스 87만5000 달러와 연봉 275만 달러 등 총 912만5000 달러를 보장받는다. 여기에 매 시즌 옵션이 연봉보다 많은 300만 달러씩 걸려 있다. /연합뉴스